



장애인

폭우·태풍 대비 및 대응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을 지키는 방법

2026년 2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재난안전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및 카카오톡 채널(챗코디 with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C)KODDI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기획·분석

조უნ화, 오지원, 강현주, 안예림

자문

장애인 기후위기 대응 자문위원단 19인

폭우·태풍이란?



폭우

비가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것



태풍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함께 오는 것

폭우·태풍으로 인한 장애인 안전 문제



복통, 설사



피부 질환



미끄러짐 사고



감전



불안, 우울

모두 함께 지켜요!

폭우·태풍 예방 및 대비



비상시 대비해 응급약품, 손전등, 비상식음료, 복용약, 보조기기, 우산, 우비, 미끄럽지 않은 신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안전디딤돌 앱의 안전지도를 통해 집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 *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 119안심콜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등록 및 활용합니다.



활동지원사, 가족, 친구 등 비상연락망을 미리 준비합니다.

- * 지원자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요령을 확인합니다.
- * 주변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위험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침수 위험지역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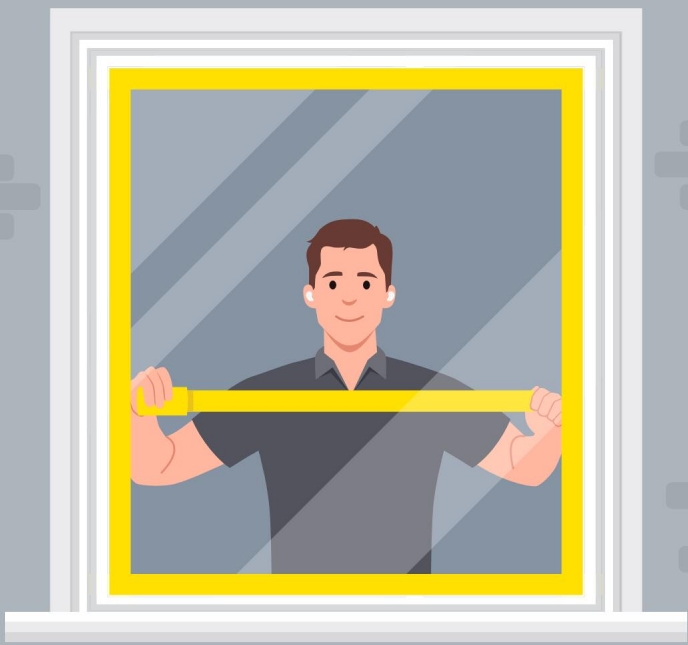


산사태를 대비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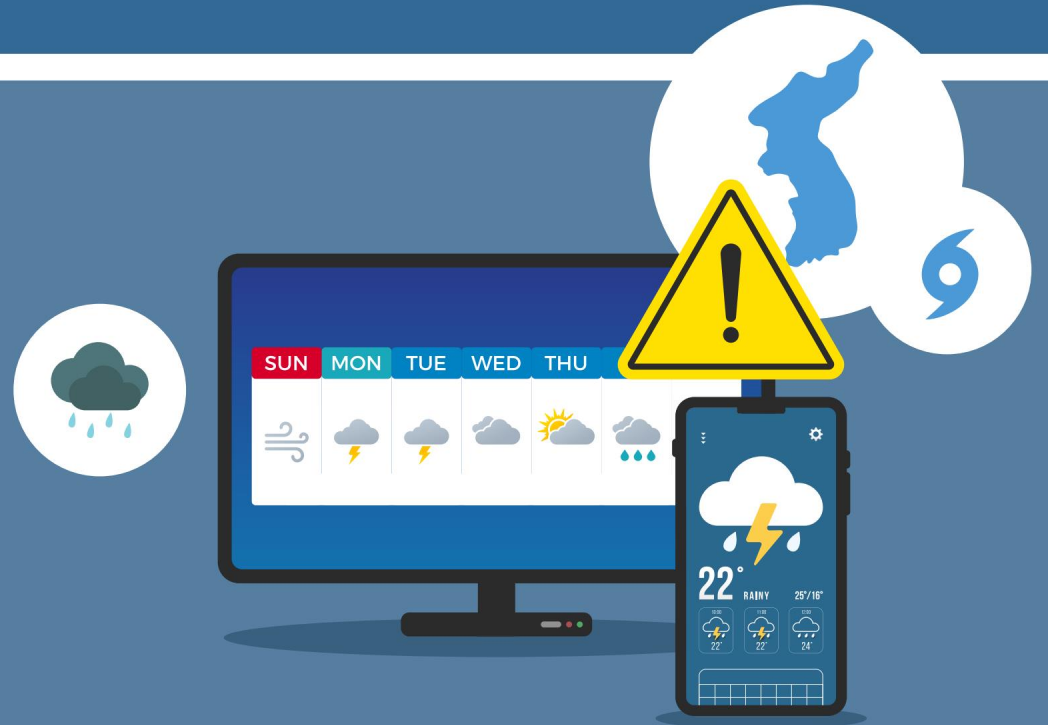
- *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시주거시설을 알아봅니다.

모두 함께 지켜요!

폭우·태풍 대응 방법



집 안의 창문과 출입문을 잘 잠그고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태풍 시 창문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ㄱ'자로 붙입니다.



TV, 스마트폰, 라디오를 통해
날씨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 이동 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 여부와 이동 경로의
위험요소를 확인합니다.



지하공간,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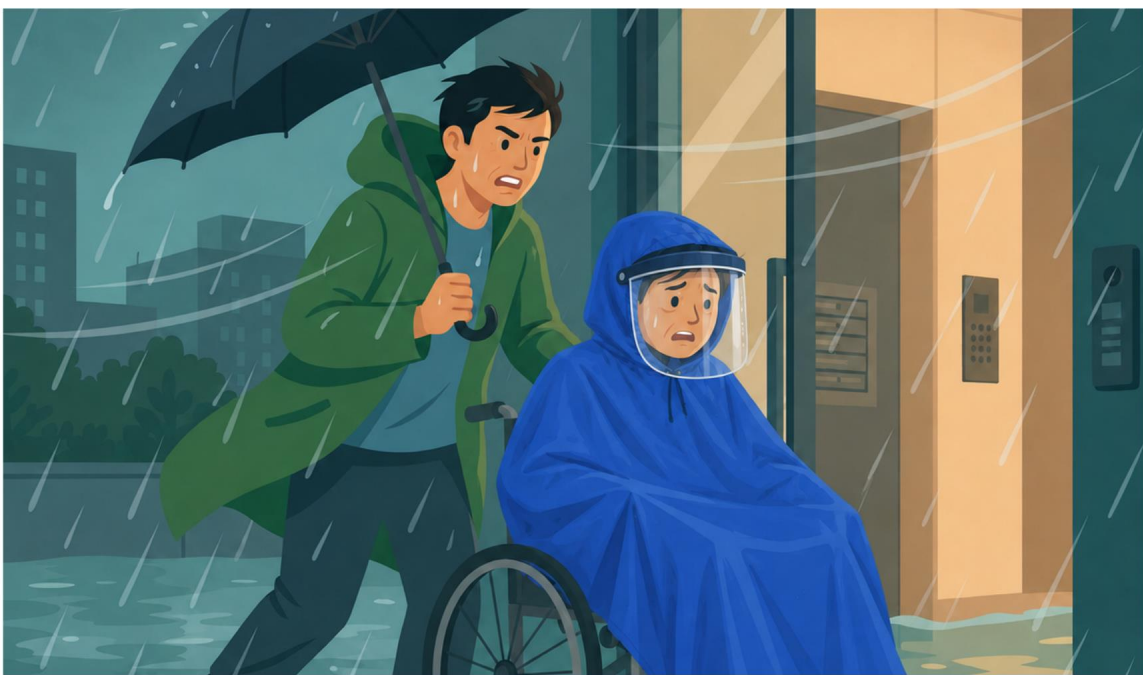


맨홀 뚜껑이나
전봇대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과 음식을 먹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폭우·태풍 대응 방법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지원자와 함께 대피합니다.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배터리나
조이스틱 등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전원이
꺼지면서 멈출 경우, 다시 전원을 켜지 않고
수동으로 전환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득이하게 비를 맞았다면, 비 맞은 부위를 마른 천으로 닦고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외부 활동 시에는 강풍으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에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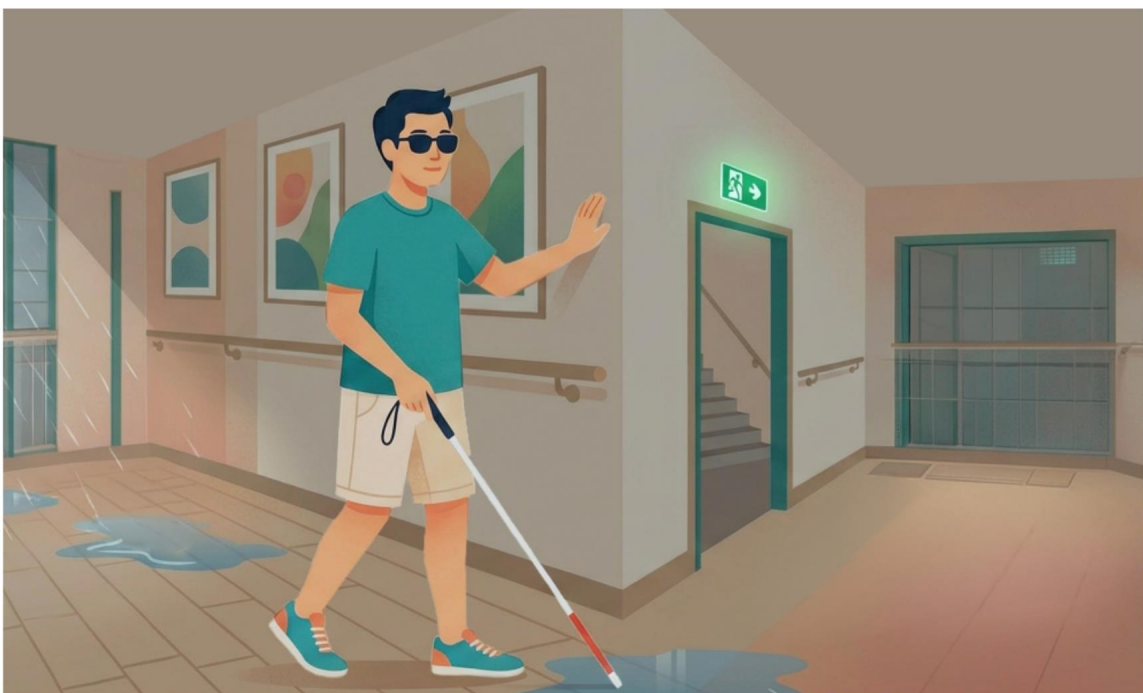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시
감전사고에 조심합니다.

* 전동휠체어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폭우·태풍 대응 방법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낮선 길보다 평소 다니던 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전 출입구 위치와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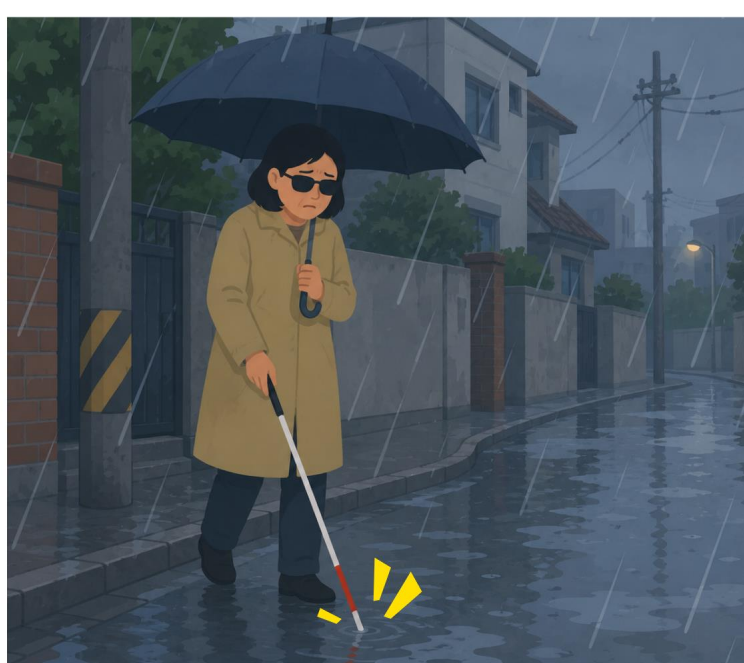
시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자(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는
촉신호*를 활용하여 위험상황을 알립니다.

* 어깨부터 허리까지 크게 엑스(X)를 두 번 빠르게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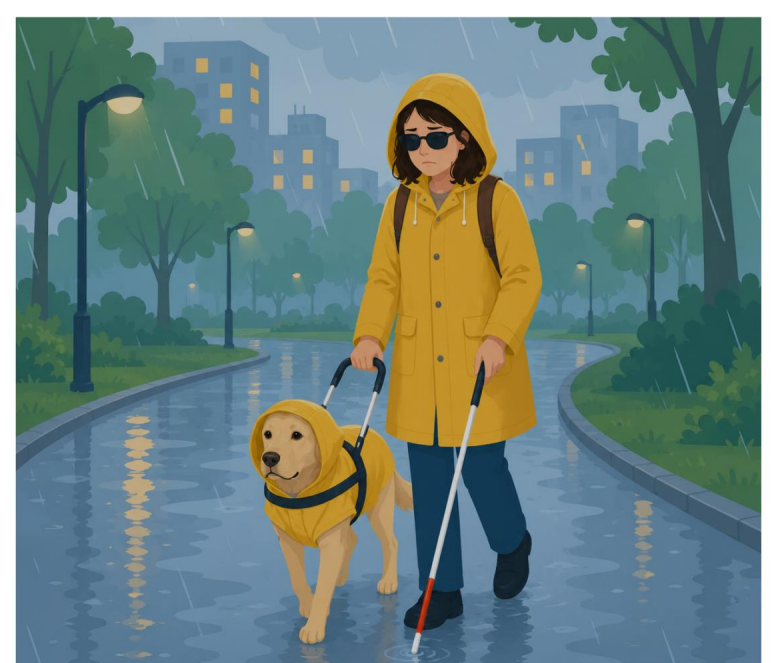


재난문자*, 라디오
(음성 안내) 등으로
날씨 상황을 확인합니다.

* 폭우·태풍 시 재난문자 알림 기능을
켜둡니다.



독립보행을 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팡이 등으로 물웅덩이를
확인하며 조심히 걷습니다.



폭우 시 보조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우비를
선택하고 비를 맞을 경우
털을 잘 말려 줍니다.

폭우·태풍 대응 방법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재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비음성 수단(재난문자,
휴대폰 알림 등)을 사전에 확보해
날씨 상황에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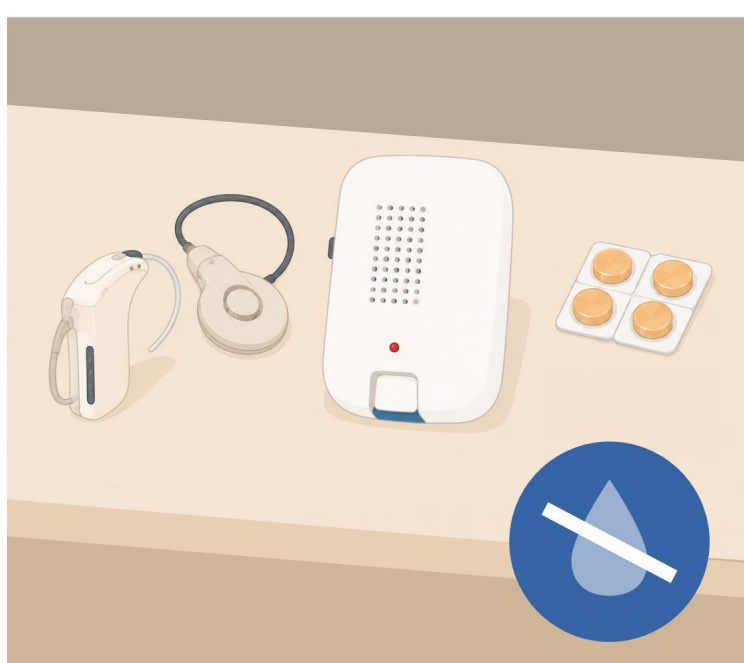


휴대전화 메모장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짧은 문장*을 저장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어요.
- * 119를 불러 주세요.



119 다매체 신고를
사전에 익혀둡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는
습기제거제, 전자 제습기
등으로 관리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여분 배터리나 예비 기기를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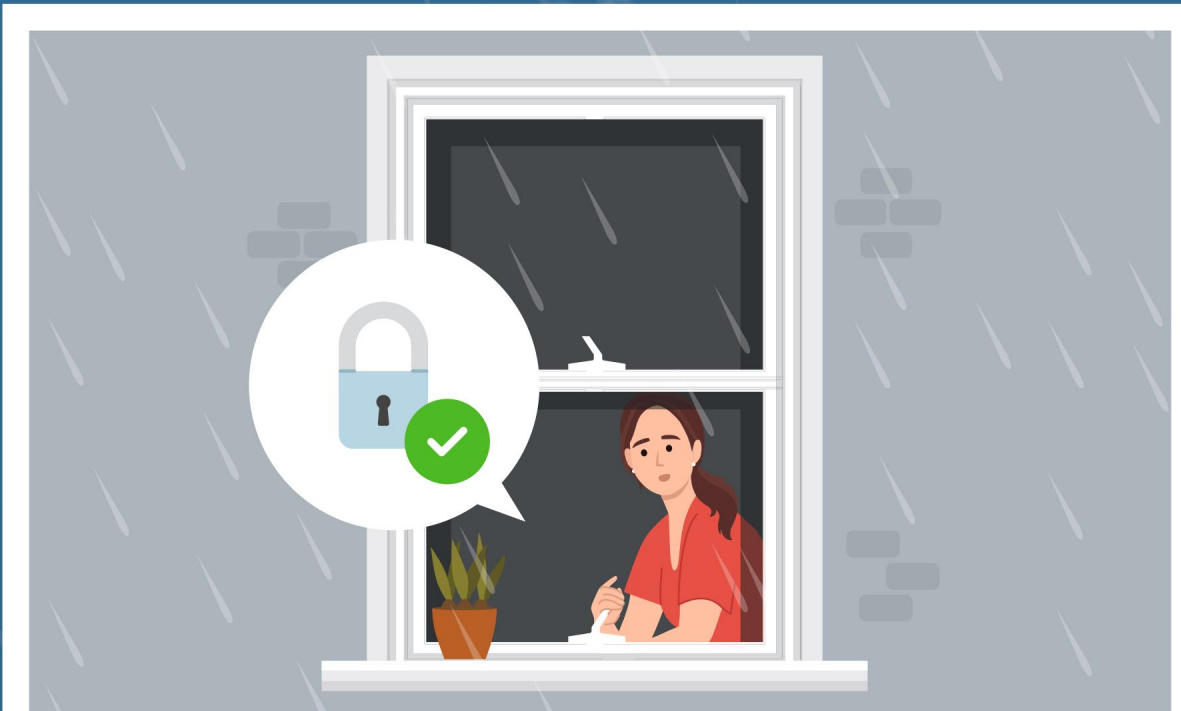


수어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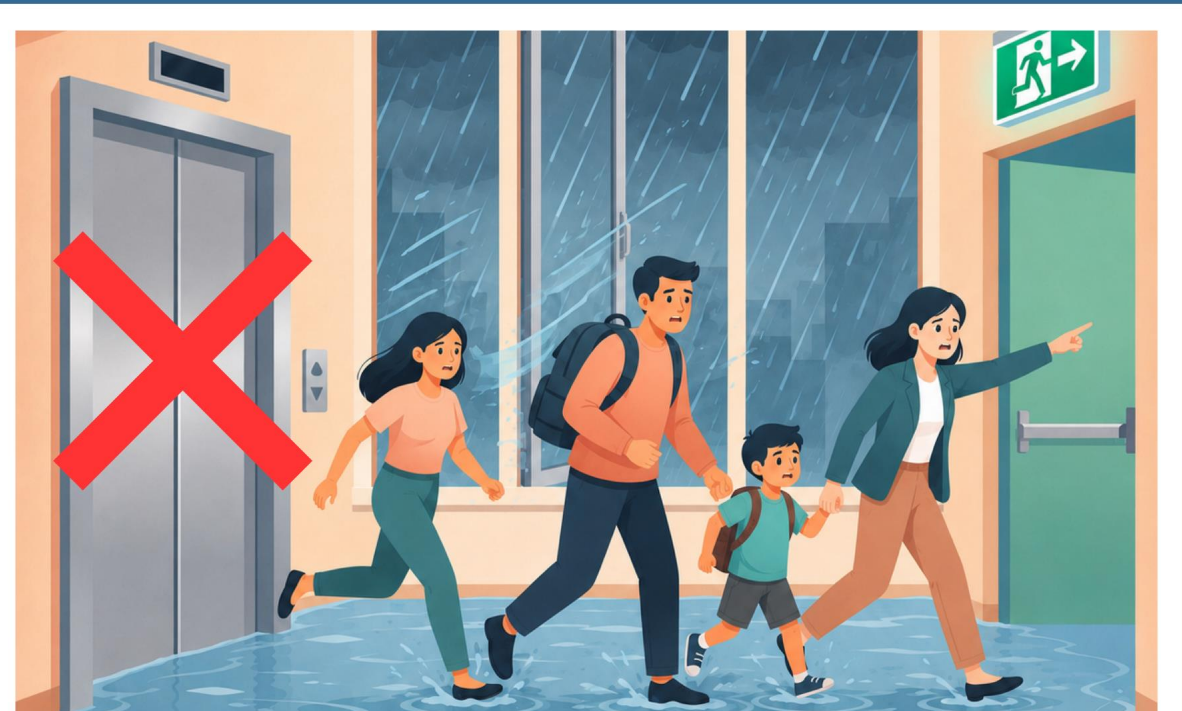
- * 지역 수어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107)

폭우·태풍 대응 방법

정서 및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집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창문을 닫습니다.



폭우·태풍 대응 행동 규칙을
미리 정해서 훈련합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
바깥 활동을 줄입니다.

* 불안하면 마음을 터놓을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날씨 변화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폭우·태풍 대응 방법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폭우·태풍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 * 신장장애의 경우, 도로침수 등에 대비해 이용 가능한 병원을 미리 파악합니다.
-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통해 응급실 및 병원을 찾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할 경우 정전에
대비해 예비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침수에 대비해 안전한 곳에 둡니다.

- * 이동용 산소 발생기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비상용 산소통을 준비합니다.
- * 배터리 완전 방전 및 기계 고장 시, 수동식 소생기(앰부백)를 준비합니다.



폭우·태풍 전 주치의와 사전에
상담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 * 복약 카드를 지참하거나, 나의 건강기록 앱을 활용하여 질환 및 복약정보를 제시합니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폭우·태풍으로
배송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의료소모품
(카테터, 투석액, 피딩백 등)을 미리 챙겨 둡니다.